

# 지혜의 말씀

불기 2564년 3월 / 통권 469호



대한불교조계종 **진행대광사**



## 證道歌 (증도가)

일 체 수 구 비 수 구  
一切數句非數句가  
여 오 영 각 하 교 섭  
與吾靈覺何交涉이리오?

모든 숫자와 말들과 숫자, 말들 아닌 것들이  
나의 신령한 깨달음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불 가 훼 불 가 찬  
不可毀不可讚이니  
체 약 허 공 물 애 안  
體若虛空勿涯岸이라.

헐뜯을 수도 없고 칭찬할 수도 없으니  
본 바탕은 허공과 같아서 끝이 없다네.

## 목 차

### 시와 불교의 만남 · 2

### 생각의 터 · 4

코로나19 물리치는 법 / 운성스님

### 불교상식 · 7

부처님의 생애

### 부처님의 말씀 · 11

### 알림마당 · 14

대광사 3월의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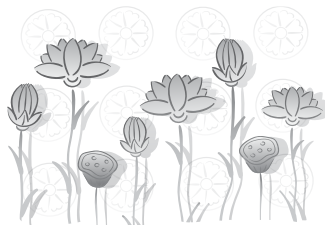
고맙습니다

제19기 대광불교대학 신입생모집



표지그림/원성스님

- 발행처 / 대광사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303(태백동)  
Tel. 055) 545-9595  
홈페이지 / ① 대광사  
② [www.daegwangsa.or.kr](http://www.daegwangsa.or.kr)
- 발행인 · 편집장 / 서경스님
- 주 간 / 이숙경
- 편집 · 인쇄 / 디자인스프링





# 코로나19 물리치는 법

윤성스님 / 대광사 회주

바이샬리에 가뭄이 극심하여 질병이 창궐했다. 그 곳 사람들은 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공포에 시달렸다. 왕사성에 머무시는 부처님께 구원을 청했다.

부처님께서 먼저 왕에게 가서 허락을 받아 오도록 했다. 저들의 간절한 바람을 가엾게 여긴 왕이 허락하여 부처님이 가시기 빠르도록 여러 편의를 제공했다.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과 함께 가시며 물을 충분히 가져가셨다. 사람들을 모두 모아 “보배경”을 외우게 하며 거리를 청소하고 집을 청소하게 했다. 마침 오래도록 가물었던 땅에 비가 흠뻑 내려 거리를 깨끗이 씻어내렸다.

사람들은 부처님 가르치심대로 일주일간 한마음이 되어 보배경을 합송하며 청소하고 기도했다. 바이샬리는 일주일만에 질병의 공포에서 벗어나 즐거움이 충만했다.

이때 “보배경”(Ratana sutta라따나 슛따)은 세상 모든 존재들의  
평안을 비는 기도문이었다. 그 보배경 내용을 간추려서 쓴다.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 하늘의 신들이거나  
세상의 사람들이거나 모두 / 행복해지기 바라나이다.

갈애를 소멸하고 죽음을 이기고 / 질병의 공포를 물리치는  
세상 제일의 치료법은 /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돕는  
청정한 자비를 나눔이네!

집 안과 거리를 깨끗이 청소하고 / 몸을 정갈히 하는 청결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배라네

거룩하신 가르치심을 익혀 / 계율을 지키며 부지런히 정진하여  
지혜를 갖춘 확고한 신념으로 / 나와 남을 이익되게 하는  
보리살타를 실천하는 것이 / 세상 제일의 보배라네!

상가는 늘 모두가 행복하기를 빌어 / 하루도 거르지 않아야 하리  
더는 나쁜 업을 짓지 않도록 / 날마다 깨우치고 이끌어야 하리  
이 땅이 정토가 되기를 빌어 / 매일을 기도해야 한다네!

하늘에 있는 생명들도 행복하기를 /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도 평  
안하기를 / 질병 없고 주림 없고 고통 없는 / 평화의 세상이 늘 이  
어지기를...

이렇게 칠일을 계속하자 질병이 사라지고 모두가 평안을 얻었다.”

고 보배경에서 이르셨다.

지구촌 모든 인류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가 어서 물러가기를 우리도 한마음이 되어 기도해야겠다.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는 짓은 아무 소득 없는 어리석은 짓이다. 모두가 집안을 청결히 하고 손을 자주 씻고 외출을 자제하고 국가의 시책에 호응하여 이겨내려는 노력을 한마음으로 기울여야 한다. 모두가 하나 되면 반듯이 물리칠 수 있다.

어서 어둠이 물러가고 광명의 날이 오기를 빌어 광명진언을 합송하여 기도하자.

**"광명진언. 음 아모카 바이로차나 마하 무드라 마니 파드마 즈바라 브라바를타야 훔"**

미국에 있는 한국인 과학자 김종(미국명 조셉 김)이라는 사람이 코로나19 백신을 만들어서 동물 실험 중이며 오는 6월 쯤이면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하게 되며 연말 정도에는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 한다.

미국에 있는 과학자이긴 하지만 한국 사람이라서 더 반갑다. 그리 세상을 기약 없는 공포에 몰아넣었던 코로나에서 벗어나 희망을 가지게 되니 고맙다.

하루가 급한 현실인데 아직도 두 달도 더 남은 유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아득하긴 하지만 언제 벗어날지 기약조차 없던 지금까지에 비하면 한결 마음이 가벼워진다.



### 3. 연기의 진리

경전의 기록처럼 부처님은 ‘어떠한 연유가 있어서 늙음과 죽음이 있는 것이며, 어떠한 법을 조건으로 하여 늙음과 죽음이 있는 것일까?’ 라는 물음을 던진다. 그리고 깊은 사유와 명상을 통해 마침내 해답을 찾아낸다. 잘 알려진 십이연기(十二緣起)가 바로 그 해답이다.

십이연기는 중생의 삶이 12가지로 윤회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①무명(無明)→ ②행(行)→ ③식(識)→ ④명색(名色)→ ⑤육입(六入)→ ⑥촉(觸)→ ⑦수(受)→ ⑧애(愛)→ ⑨취(取)→ ⑩유(有)→ ⑪생(生)→ ⑫노사(老死).

무명으로부터 시작하여 노사에 이르는 과정을 관하는 것을 순관(順觀)이라고 하고, 반대로 노사로부터 시작하여 무명에 이르는 순서를 관하는 것을 역관(逆觀)이라 한다.

왜 늙음과 죽음이 있을까? 그것은 태어남(生)으로 말미암아 발생한다. 그렇다면 왜 태어남이 있는가? 그것은 존재의 뿌리(有)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다. 존재는 자기것으로 소유하려는 집착(取)으로 말미암아 생겨났고, 집착은 어떤 대상에 대한 애착(愛)때문에, 애착은 받아들이는 느낌(受)이 있기 때문에, 느낌은 접촉(觸) 때문에, 접촉은 눈, 귀, 코, 혀, 몸, 마음의 6개의 감각기관(六入) 때문에, 6개의 감각기관은 정신과 물질(名色)을 말미암기 때문에, 정신과 물질은 그것을 형성하는 식(識) 때문에, 식은 무의식인 형성력(行) 때문에, 무의식적인 형성력은



밝지 못한 무명(無明)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다. 바로 무명 때문에 갈망하고 집착하여 생을 받아 태어나고, 태어난 것은 늙어가고 병들어 죽을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부처님께서 아시고 무명을 타파하여 깨달으신 것이다.

부처님은 이 연기의 법칙은 당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고 하셨다. 그것은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든 나오지 않든 간에 진리로서 변함이 없으며, 당신은 다만 이 진리를 깨달았을 뿐이라고 하셨다. 요컨대 연기법이 세계와 인간에 대한 불변의 진리임을 강조하시 것이다.

아함부 경전에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 그리고 연기를 보는 자는 부처님을 본다.”는 구절이 있다. 이 말씀은 구도자 고타마가 연기의 진리를 깨달아 비로소 부처가 되었으며, 그 깨달음의 핵심이 바로 연기법임을 잘 말해 준다.

연기법은 사실 세계의 현상관계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고통과 불행이 생겨나고 어떻게하면 그것을 극복하여 즐거움과 행복의 이상에 도달할 수 있는가 하는 인생의 실상을 바르게 깨닫게 한다. 인생의 실상을 바르게 알고, 그 바른 인생관에 따라 노력하고 수행해서 이상을 성취하도록 인도하고 있는 것이다.

또 연기법은 모든 것이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공생하므로 나만이 난 너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인간과 자연계와의 공생관계를 설명한다. 연기 관계에서 볼 때 모든 것은 각각 주인이요 소중한 존재이다. 그러나 각각의 소중함은 여러 대상들과 함께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관계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호 신뢰와 상호 존중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연기의 도리를 이론이 아닌 몸과 마음으로 깨우치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연기를 통해 모든 존재는 차별을 떠나 평등하





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모든 존재는 차이는 있으나 차별은 없다. 서로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동등한 자격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거기에 인종, 국적, 남녀에 대한 편견은 자리 잡지 못한다. 아울러 우리가 연기법을 실천하게 되면 안으로 늘 깨어 있는 삶을 살 수 있으며, 분별과 집착을 버리고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 2) 중도

“비구들이여, 출가 수행자는 두 가지 극단을 피하여야 한다. 무엇이 두가지인가? 첫 번째는 감각적 쾌락에 몰두하는 것으로 이것은 저열하고, 천박하고, 하찮고, 유익함이 없다. 여래는 이 두가지 극단에 치우침이 없어 중도(中道)를 깨달았다. 중도는 통찰력을 주며, 지혜를 주며, 평화를 주며, 깨달음으로 이끌고, 열반으로 이끈다.”

『율장』 「대품」

중도는 쉽게 말해서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불교에서는 유(有)와 무(無)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진실한 도리, 고(苦)와 낙(樂)의 양쪽을 떠난 올바른 행법을 가르킨다. 부처님께서서는 이 중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유로 가르치셨다.

유복한 집안 출신인 소나라는 비구가 치열한 고행을 했지만 해탈의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자 다시 속세로 돌아가 안락한 생활을 하리라고 작심을 하고 있었다. 부처님이 이를 알고 그에게로 다가갔다. 소나는 출가하기 전에 거문고를 잘 탔었다.

“소녀여, 그대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거문고의 줄이 너무 팽



팽하다면 거문고에서 좋은 소리가 나겠는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소나여, 그대의 거문고 줄이 너무 느슨하다면 어떻게겠는가? 거문고를 탈 때 좋은 소리를 낼수 있겠는가?”

“그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소나여, 그대의 거문고 줄이 너무 팽팽하지고 않고 또 느슨하지도 않고 알맞게 조여져 있을 때 연주를 해야 좋은 소리를 낼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소나여, 바로 그와 같음을 알라. 뼈를 꺾는 정진이 너무 지나치면 마음이 격앙되어 안정되지 못하고, 정진이 너무 완만하면 나태에 빠진다. 그러므로 소나여, 그대는 평등한 정진에 머물러야 하며, 또 여러 감각기관이 모두 고루 평등하도록 지켜야 하며, 그 중도를 취해야 하느니라.”

『잡아함경』 「제9권 이십억이경」 二十億耳經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은 직후, 예전에 함께 수행하다 떠난 다섯명의 수행자를 찾아가 처음으로 설법을 하셨다. 이를 초전법륜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중도와 팔정도(八正道), 사성제(四聖諦)가 그 중심을 이룬다.



## 제3품 큰 법문의 품 [Maha-Vagga]

### 1. 출가의 경

1. [아난대] “눈을 갖춘 님이 어떻게 출가를 했는지, 어떻게 생각한 끝에 그가 출가를 기뻐했는지, 나는 그 출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2. 재가의 삶은 번잡하고, 티끌 쌓이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출가는 자유로운 공간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보고 그가 출가했던 것입니다.
3. 출가한 뒤에 그는 신체적으로 악행을 피하고, 언어적으로 짓는 악행도 버리고, 아주 청정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4. 깨달은 님은 마가다 국의 산으로 둘러싸인 라자가하로 갔습니다. 온 몸에 뛰어난 특징을 지닌 그는 탁발하기 위해 간 것이었습니다.
5. 빔비싸라 왕은 서서 궁전 위에서 그를 보았습니다. 뛰어난 특징을 갖춘 님을 보고 이와 같이 말을 했습니다.
6. [빔비싸라 왕] ‘그대들은 저 사람을 보아라. 아름답고 건장하고 청정하고, 걸음걸이도 우아할 뿐 아니라 멩에의 길이만큼 앞만을 본다.



7. 눈을 아래로 뜨고 마음챙김을 확립하고 있다. 그는 천한 가문 출신이 결코 아니다. 왕의 사신들이여, 그를 쫓아가라. 저 수행승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8. 왕의 사신들이 파견되어 그의 뒤를 따라 갔다.  
[사신] ‘저 수행승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그는 어디에 머물려 하는 것일까?’
9. 그는 감관을 수호하여 잘 다스리고, 올바르게 알아채며, 마음챙김을 확립하고, 차례로 탁발을 빌면서 잠깐 동안에 발우를 채웠습니다.
10. 성자는 탁발을 끝내고 그 도시 밖으로 나와 ‘여기에 나의 처소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뽕다바 산으로 향했습니다.
11. 고탓마 님이 처소에 도착한 것을 보자 사신들은 그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한 사신은 돌아가 왕에게 그 사실을 아뢰었습니다.
12. [사신] ‘대왕이시여, 그 수행승은 뽕다바 산 앞쪽에 있는 굴속에 호랑이나 황소처럼, 그리고 사자처럼 앉아 있습니다.’
13. 사신의 말을 듣자 전사의 왕은 화려한 수레를 타고 뽕다바 산이 있는 곳으로 재촉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14. 갈 수 있는 곳까지 달려간 뒤 전사의 왕은 수레에서 내려 손수 걸어서 다가가 그의 곁에 가까이 앉았습니다.



15. 앉아서 왕은 기뻐하면서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주고받은 뒤에 이와 같은 도리를 말했습니다.
16. [빔비짜라왕] ‘당신은 어리고 젊습니다. 첫 싹이 트고 있는 청년입니다. 용모의 수려함을 갖추고 귀한 왕족 태생인 것 같습니다.
17. 코끼리의 무리가 시중드는 위풍당당한 군대를 정렬하여 당신께 선물을 드리니 받으십시오. 문건대, 당신의 태생을 말해 주십시오.’
18. [세존] ‘왕이여, 저쪽 히말라야 중턱에 한 국가가 있습니다. 꼬깔라국의 주민으로 재력과 용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19. 씨족은 ‘아딧짜’라 하고, 종족은 ‘짜끼야’라 합니다. 그런 가문에서 감각적 욕망을 구하지 않고, 왕이여, 나는 출가한 것입니다.
20. 감각적 욕망에서 재난을 보고, 그것에서 벗어남을 안온으로 보고 나는 정진하고자 합니다. 내 마음은 이것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 다음호에 계속 -



## ◎ 대광사 3월 법회 및 행사 ◎

- ◇ 3월 9일 음력2월 보름법회 오전 10시 30분 설법전(취소)
- ◇ 3월 16일 용왕재 기도 입재 오전 10시 30분 설법전(취소)
- ◇ 3월 18일 용왕재 기도 회향 오전 10시 30분 설법전(취소)  
관음재일 다라니기도 저녁 6시 30분(저녁예불~)(취소)
- ◇ 3월 24일 음력3월 초하루기도 입재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 3월 25일 신도기본교육(찬불가)
- ◇ 3월 26일 초하루 기도 회향
- ◇ 3월 27일 신도기본교육 수련회
- ◇ 3월 28일 수계식
- ◇ 3월 31일 불대19기 1학기 개강 오전 10시 불대강의실

※ 문의 및 접수 : 대광사 종무소 ☎055-545-9595





## 고맙습니다

### 대광후원회

(1.20 ~ 2.17)

금강지 20,000	정창운 20,000	불대12기 50000	문형호 100000
홍승운 20,000	공상섭 30,000	정대식 20,000	정원규정원연구소 50,000
황두관 10,000	문병학 30,000	김지현 50,000	진성화 20,000
김경남 20,000	정순남 70,000	이미정 50000	찬불단 50,000
법연화 10,000	이경화 20,000	조한분 25,000	이동이연속 100,000
(주)카텍 300,000	오혜정 100,000	법연지 50,000	강란 10,000
손보미 10,000	박미애 10,000	김보배 30000	유미란 50,000
변창인 20,000	원광한의원 100,000	김병문 20,000	대광사후원회 100,000
문정근 20,000	공상섭 30,000	황두관 10,000	서경스님 50,000

◆ 급식소 후원 계좌: 수협 921-61-001338 대광사 ◆

※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 서부노인종합복지관 후원

문순자 20,000    조한분 25,000    법계화 50,000    서경스님 50,000

#### ♥ 지혜의 말씀

(영)청량심    구명희    오현우    문병학    전진길



# 佛紀 2564年 대광사 신도기본교육 및 제19기 대광불교대학 신입생모집 안내

진흙에서 핀 은은한 연꽃이 세인을 매료시키듯 부처님의 말씀 또한 그러합니다.  
부처님께서 어떤 것이 지혜로운 삶이며 어떻게 살아야 바른 삶인가를 가르치시고 이끄셨습니다.

대광사에서는 올해도 훌륭한 스님과 법사님들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부처님 가르침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신도기본교육 및 불교대학을 개강하오니 불자님들께서는 많이 동참하시어 값진 깨달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 신도기본교육 제19기 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요강

	신도기본교육	대광불교대학
대 상	미수계자 및 초심자 누구나	신도오계 수계자
교육기간	2020년 3월 3일~3월 25일	2020. 3. 31(화)~12. 9(화) (1년 과정 - 2학기제)
수계일	2020년 3월 28일	

- ▶ 교육일시 : 매주 화·수 오전 10시~12시
- ▶ 접수기간 : 2019년 8월 1일부터 ~ 2020년 2월 말까지
- ▶ 수 강 료 : 신도기본교육 50,000원 (신도증발급, 수계비, 수련회비 포함)  
불교대학 1학기 150,000원 (교재비, 성지순례비, 수련회비 포함)
- ▶ 문의 및 접수 : 대광사 종무소 055)545-9595
- ▶ 강의내용

의 식	예불 및 의식(찬불가)
예 절	사찰예절, 신도오계
교 리	부처님의 생애, 사성제, 팔정도 등
불 교 문 화	법당, 탑, 탕화, 벽화, 문학, 성지순례
신 행	참회와 기도, 사경 보시와 자비실천, 수련회
불 교 역 사	인도·중국·한국 불교사, 동남아 불교사
불 교 사 상	중관, 유식, 화엄, 선사상 등
경 전	반야심경, 천수경, 금강경 등
특 강	사찰음식, 다도, 불교 사회복지 실천, 수련회, 성지순례

대한불교조계종 진해대광사